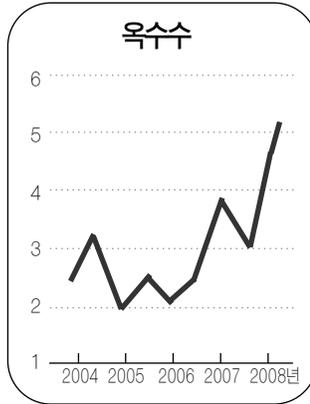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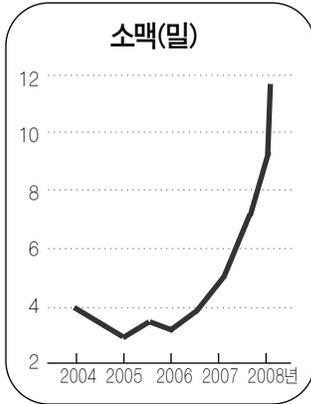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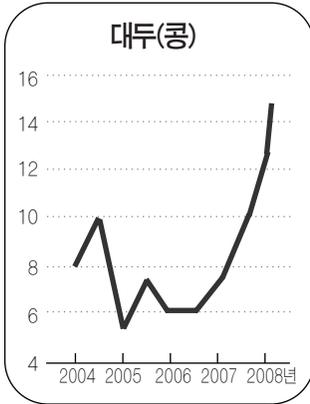


국제곡물가격 증가 추이

단위 : 부셸 당 달러  
 ※ 부셸(bushel)은 곡물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27kg  
 ※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가격(최근월물)기준



〈자료: 조선일보〉

숨은그림찾기 정답 72



편집후기

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? '21세기는 기아의 시대'가 될 것이라는.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은 경고가 피부에 와 닿는다. 두렵지 않을 수 없다. 운택한 삶 가운데, 식량·식품위기의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다.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'무농약의 비극'을 열거해 왔다. 농업은 '재배기술, 비료, 농약'이란 세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. 정녕 무농약의 비극을 맞볼 참인가? '의식이 충족되어야 예절을 안다'라는 말이 있다. 다음호엔 식량위기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.

독자의 글을 받습니다.



- ▶ 이 책지는 농약안전사용 및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무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. 받으신 분은 서로 돌려 읽으시어 농약안전사용 및 올바른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애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이나 지도수기, 산문, 콩트 등 투고를 환영합니다. 투고한 원고 중 뽑힌 글은 본지에 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. 원고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접수된 원고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.